

장정석 KIA 신임 단장 타이거즈 재건 나선다

감독 선임 최우선 과제

‘호랑이 군단’이 장정석(48) KBSN스포츠해설위원을 단장으로 해 팀 재건에 나선다.

KIA타이거즈가 24일 장정석 위원을 신임 단장으로 임명했다.

외야수 출신의 장 신임단장은 투수고-중앙대를 졸업하고 1996년 현대 유니콘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2002년에는 최익성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고, 2004년까지 3년간 KIA에서 뛰면서 161경기에 출전했다.

이후 현대 기록원, 키움 히어로즈 매니저와 운영팀장을 거쳐 2017~2019시즌에는 키움 지휘봉을 잡았다.

‘코치 경력 없는 사령탑’이라는 우려의 시선에도 2019시즌 키움의 준우승을 지휘하며 역량을 인정받았고, 2020년부터 해설자로 변신해 마이크를 들었다.

장 신임단장은 ‘9억짜리’ 장재영(키움)의 아버지로도 유명세를 탔다.

KIA관계자는 “장정석 단장은 KIA 타이거즈에서 3년 간 선수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단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프런트와 선수단의 화합과 소통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데이터 기반의 선수 관리와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고 밝혔다.

타이거즈 재건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장 단장은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구단 사



장정석 신임 단장

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KIA는 신임 단장 선임에 앞서 23일 조직개편을 단행, 2실 7팀 3워킹그룹 체제를 2실(단장실·지원실) 5개팀(전략기획팀·운영1팀·운영2팀·경영지원팀·홍보마케팅팀)체제로 전환했다.

또 단장 산하로 스카우트 업무(신인 선발, 트레이드, FA, 외국인 선수)를 총괄하고, 데이터 분석 및 중장기 선수단 운영계획 수립 등 팀 전력 강화를 담당하는 전략기획팀을 신설했다. 선수단 지원과 관리를 맡는 운영1·2팀도 단장 산하로 운영된다.

장 신임단장은 전력기획팀장 임명과 감독 선임 등을 우선 과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김태진(왼쪽)과 류지혁이 챔피언스필드에서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꿀찌 추락 AI 페퍼스 ‘인삼’ 먹고 탈출할까



오늘 인삼공사와 원정 경기



AI페퍼스가 신생팀의 매운 맛을 보여줄 것인가, ‘승점 재판기’에 머물 것인가.

AI페퍼스가 25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KGC인삼공사와 도드람 2021-2022 V리그 원정 경기를 갖는다.

인삼공사는 현재 여자부 2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이다. 승점 21점을 확보한 인삼공사는 승점 29점의 현대건설을 8점차로 추격하고 있다.

AI페퍼스는 2라운드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 IBK기업은행이 23일 흥국생명을 3-0으로 완파하면서 총 승점 5점을 확보, AI페퍼스와 동률이 됐다. 총 9개 세트를 확보한 AI페퍼스는 총 13개 세트를 따낸 기업은행에 밀려 7위, ‘꿀찌’로 나앉았다.

AI페퍼스가 인삼공사와 폴세트 점전을 펼칠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6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 폴세트 상황에서는 패배해도 승점 1점을 획득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반면 인삼공사는 1위와 승점 차이를 좁혀야 하는 만큼, 승점 3점을 오롯이 획득할 수 있는 3-0, 3-1 승리를 노리고 있다.

인삼공사에는 이소영·염혜선·박은진 등 도교를 립픽 국가대표 3명을 포함해 노련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인삼공사의 공격 성공률은 38.16%로, 특별히 높진 않다. 다만 한송이와 박은진을 활용한 이동

공격은 위협적이다. 지금까지 37번의 이동공격을 시도해 21회 성공, 56.76%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염혜선의 센스 있는 세트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킥오픈도 경계 대상이다. 인삼공사는 오픈 상황에서 24.38%의 공격을 킥오픈으로 할애하고 있다.

노란과 이소영의 튼튼한 수비를 뚫는 것도 숙제다. 노란은 세트당 7.68회로 수비 2위, 이소영은 세트당 6.42회로 수비 5위에 올라 있다. 특히 노란은 세트당 6.00회 디그에 성공해 흥국생명 김혜란에 이어 디그 랭킹 2위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AI페퍼스는 총 득점 239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포’ 엘리자벳을 앞세워 수비벽을 뚫는다. 이번 경기에서 엘리자벳이 17득점 이상 올리면 득점 1위도 탈환할 수 있다.

한편 AI페퍼스는 인삼공사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인삼공사는 AI페퍼스에게 ‘첫 세트’를 헌납했던 팀이다. 지난 1라운드에서 개막전 상대로 만났던 인삼공사는 AI페퍼스의 목직한 서브와 공을 놓지 않는 끈질긴 수비에 당황해 헛점을 보였고, 25-16 큰 점수차로 세트를 내줬다.

이영택 인삼공사 감독은 당시 “AI페퍼스의 엘리자벳 선수도 실력이 좋고, 젊은 선수들이 분위기를 타니 무섭게 치고 나온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은 팀이다”고 엄지를 치켜올렸다.

AI페퍼스가 강팀에게도 서슴없이 맞서는 패기를 살려 6위로 재차 뛰어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IA 수비 기본부터 다진다

강도 높은 마무리캠프 준비부터 스텝까지 “정확하게”

KIA 타이거즈가 ‘정확함’으로 승률을 높인다.

KIA는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마무리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캠프를 이끄는 김중국 수석코치가 ‘기본기’를 강조하면서 수비 비중도 높였다.

수비 훈련 시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정확성’이다.

김민우 수비 코치는 물론 김 수석코치도 직접 평고를 때리면서 선수들에게 “정확하게”를 외치고 있다.

빠른 동작보다는 정확한 동작이 이번 캠프 선수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준비 자세부터, 공을 잡고, 포구하는 순간 스텝 하나까지 까다롭게 살펴보고 있다.

김 수석코치는 “기본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 아웃카운트 늘리는 방법이나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레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며 “급하게 하면서 아웃카운트 2개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빠르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송구와 포구로 아웃카운트를 늘려야 한다. 이게 내야든 외야

든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 하나 훈련 시간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비디오 판독’이다.

예전에는 타이밍 상으로 아웃과 세이프가 갈렸지만, 지금은 비디오 판독으로 세세하게 수비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그만큼 더 정확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김 수석코치는 “어차피 비디오 판독을 하면 정확하게 나온다. 정확하게 하면 된다. 빨리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발도 때어지고 그러다”며 “지금 은 네이버 후드도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KIA 입장에서는 아웃카운트 하나의 가치를 알았던 시즌이었다.

공격적으로는 상대 투수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못했고, 어렵게 출루를 하더라도 진루타·작전 수명 능력이 떨어지면서 허무하게 아웃카운트가 쌓였다.

반대로 수비에서는 실수가 이어지면서 투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기도 했다.

김 수석코치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번트를 해주면 좋다. 아웃카운트를 하나 늘릴 수 있니까 좋다. 그만큼 아웃카운트 잡는 게 쉽지 않다. 스트라이크존도 좁아져서 타자 잡는 게 쉽지 않

다”며 좋은 수비를 통해 아웃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시절 ‘수비’로 명성을 날렸던 만큼 누구보다 수비의 가치를 잘 아는 김 수석코치.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강조하는 것도 다 그런 경험에서 나온다.

김 수석코치는 “팬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코칭스태프나 구단은 안정적인 수비를 좋아한다. 국민 유격수로 불렸던 박진만 삼성 퓨처스 감독도 화려한 수비를 했던 것은 아니다. 정확히 아웃카운트 처리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타구를 쉽게, 정확하게 하나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국민 유격수 칭호를 받았을 것이다”며 “같이 선수 생활하고 국가대표 해보면 절대 화려한 수비 안 하고 리빙스루도 안 하려고 했다. 받는 사람이 다음 플레이 하기 좋게 수비를 했다. 정확하게 공이 와야 다음 플레이를 빨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송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옆으로 공이 오면 잡고 그 다음 송구를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같이 어려운 송구하면 실수가 하나만 나올 게 2-3개가 나올 수 있다”며 “정확함”을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학축구 U리그 1, 2부 분리... 내년부터 승강제 도입

대학축구에도 승강제가 도입된다.

대학축구협회는 24일 “2022년부터 대학축구 U리그의 참가팀을 1, 2부로 분리해 경기를 치르고 승강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U리그의 1, 2부제 도입은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내년 3월 개막하는 2022년 U리그에는 전국에서 80여개 대학팀이 참가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이들 팀을 1부 36팀, 2부 50여개팀으로 분리해 연중 리그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2부 리그 최종 참가팀은 다음 달 U리그 참가 신청 접

수가 끝난 뒤에 확정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간의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1부 팀이 가려진다.

‘전통의 강호’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해, 용인대, 전주대, 선문대 등 최근 강세를 보인 팀들이 1부리그를 확정했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K리그처럼 성적에 따라 승격팀, 강등팀이 가려진다.

승강제의 숫자는 1·2부별로 조편성이 완료된 뒤 발표된다.

조규연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은 “그동안에는 상하위 팀들간의 전력 격차로 인해 경기 자체

의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1, 2부 디비전 제도를 실시하면 상위권 팀들은 강팀과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프로에서도 통할수 있는 기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또 패배에 익숙했던 하위권 팀들은 승리의 경험과 자신감을 되찾음으로써 이전보다 의욕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 시즌 U리그는 11권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원광대, 군장대, 호남대, 광주대, 전주대, 우석대, 동강대, 한일장신대가 7권역(전북·광주)에서 대결을 벌였고, 목포과학대, 남부대, 조선이공대, 한려대, 초당대, 조선대, 동신대, 전남과학대는 8권역(광주·전남) 우승을 다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